

화순온라인몰, 매출 10억 돌파...지역농가 소득 증대

화순팜 농특산물 적극 홍보 효과
지난해 대비 2배 빠른 성장세
미니파프리카·한우 등 인기몰이

화순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 매출이 10억원을 돌파했다. 매출기록은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9일 화순군에 따르면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이 올해 매출 10억원을 돌파했다.

2008년 개설된 화순팜은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화순팜 활성화를 추진한 결과 전년도에는 최고 매출 16억원을 달성했고 올해 매출 10억원 달성 속도는 전년도 대비 2배 이상 빠른 속도이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설 이벤트, 새봄맞이, 축제 연계, 우체국 브랜드관 등 시기별 다양한 이벤트와 SNS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화순팜을 알리고, 우리 군 농특산물인 미니파프리카, 방울토마토, 한우, 보리굴비, 장어 등이 인기를 끌었다.

화순 고인돌 봄꽃 축제, 명절 직거래장터 등 다양한 현장에서 직접 소비자를 만나고 화순팜 농특산물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현재 화순팜에서는 17일까지 가정의 달, 감사의 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 상품 20% 할인 쿠폰(최대 5만 원)과 신규회원에게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추가로 지급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팜의 기반이 마련된 만큼 더욱 도약하는 화순팜이 되어 화순군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화순만의 특색있는 상품을 발굴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중 기자

청년 내일 저축 계좌 가입 모집
해남군, 3년 저축시 1080만원

해남군은 일하는 청년에게 저축을 통한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가구의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합해 적립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자가 3년간 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하면 중위소득 50~100% 이하의 저소득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50%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3년간 저축을 하면 만기시 720만~1080만원의 적립금과 별도의 예금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을 저축해야 하고, 만기 6개월 전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온라인 복지포털(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군 복지정책과(061-530-5344)로 문의하면 된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 확대
나주시, 신청절차도 간소화

나주시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 확대를 위해 슬레이트가 있는 주택·비주택(창고·축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복잡했던 신청기준,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실태조사는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읍·면·동 20곳 전체 슬레이트 건축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슬레이트 주택·비주택 위치, 면적, 지붕 덧씌움 등 현황을 파악해 체계적인 처리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엔 슬레이트 주택 소유자의 사망 등으로 상속이 안된 경우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업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로 철거를 포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를 개선하고자 모든 상속 관계자들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상속자 중 대표자 동의와 공시송달로도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나주시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시청 누리집에 5월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주택 잔여 사업분 80여동에 대한 철거 지원 신청을 읍·면·동에서 선착순으로 받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더 많은 지원 대상을 발굴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 환경오염 문제를 예방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 기자

어린 대하 종자 200만 마리 방류
완도군, 수산자원 조성 기여

완도군이 지난 8일 금일읍과 고금면 해역에 어린 대하 종자 200만 마리를 방류했다.

9일 완도군에 따르면 수산 자원 조성 및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대하 종자 방류 행사에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완도군 관계자와 각 마을 주민들이 함께했다.

군은 지난해 대하 종자 800만 마리를 군외면 삼두리와 고금면 농산리에 방류한 데 이어 올해는 금일 월송리 및 고금 덕동리 해역에 각각 100만 마리씩 방류했다.

대하 종자 200만 마리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로부터 무상으로 지원받았다.

대하는 서남해안에서 서식하는 새우류 중 가장 크며 이번에 방류된 대하는 1.2cm의 어린 대하이다.

군 관계자는 "대하는 경제적 가치가 높다"며 "어업인 소득 증대 및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고소득 품종의 종자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



완도군이 수산 자원 조성과 어업인 소득에 기여하기 위해 어린 대하 종자 200만 마리를 방류했다.

완도군 제공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미선정 구역 입주기업 모집

제품개발 가속화

고흥군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미선정 구역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9일 고흥군에 따르면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전체 15개 구역으로 유리온실 11구역, 노지 4구역으로 구성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는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제품 개발과 성능을 분석·보완하는 실험 공간으로 제품 테스트 및 실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감·인증을 받기 위해 마지막 점검을 하는 최종 단계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 총 11개 기업이 계약 체결해 오는

6월 작물 정식 시기에 맞춰 기업이 입주해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스마트팜 관련 기업이 자체적으로 조성한 온실이나 농가 온실을 임차해 실증 실험을 진행했다면 앞으로는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 최첨단 스마트팜 온실에 입주해 기술 및 제품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된다.

고흥 실증단지는 기업지원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전남TP')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현재 미선정 구역 입주기업을 모집 중으로 오는 5월17일까지 접수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기술성, 사업성 등 전문 심사위원단이 신중하게 평가해 5월 중 최종 선정 계획이다.

모집 중인 미선정 구역은 온실 198평 한 구역, 435평 두 구역, 노지 500평 한 구역이다. 입주기업 모집 관련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스마트실증산업센터(061-844-9245)로 문의하면 된다.

실증단지 입주기업은 입주 시설에서 원하는 관련기술 및 제품을 실증할 수 있으며 위탁기관인 전남 테크노파크를 통해 실증기업 지원사업, 기자재 상용화 등 실증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입주기업들이 전남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실증단지에 입주해 국내 스마트 농업 관련 기술 및 제품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기림 기자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실 운영
장흥군 유치면

장흥군 유치면은 최근 유치면복지회관 2층에서 30명의 수강생과 함께 정리수납 전문가 양성교실 첫수업을 가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치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재)장흥군나눔복지재단 공모사업비 600만원을 확보해 추진했다.

이영주 강사가 지도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매주 목요일 주야간 반별로 2시간씩 8회 교육과 2회의 실습계획으로 진행했다.

정리수납 교육은 효율적인 정리(수납)시스템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이고, 정리 전문가 자격증 취득으로 사회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정리수납의 개념과 필요성, 거실, 주방, 화장실 등 주거공간별 효율적인 수납 정리방법, 재활용 DIY와 관련한 이론 및 실습으로 구성됐다.

교육 참여자는 "2시간의 시간이 지루할 틈도 없이 내 생활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었다. 무료로 배움의 기회를 얻고 이웃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생겨 뜻깊은 교육이었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완도군, 전국 청소년 드론 스포츠 대회 열려

완도군은 지난 5일 청해진스포츠센터에서 열린 '2024 전국 청소년 드론 스포츠 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2024 전국 청소년 드론 스포츠 대회'는 완도군이 주최하고 완도청소년문화의집, 완도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대한드론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대회는 청소년의 드론 운용 능력과 창의성을 높이고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마련됐으며, 2024 정부합동평가 대비 및 국토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일환(완도 별바다치유 문화 청소년 플랫폼)으로 추진됐다.



대회는 '해양치유 완도, 드론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라는 주제로 정식 4종목, 로컬 2종목, 체험 6종목의 경기가 진행됐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학생들이 실력을 뽐낸 결과, SW 코딩 드론 1위는 반기빈

(고실초 6), 드론 장애물 레이스 1위는 전준우(효천초 6), PRC-스피드 드론 초등부 1위는 황태민(효천초 6), PRC-스피드 드론 중고등부 1위는 허승우(문태중 2), 배틀 드론 단체전 초등부 1위는 형아(효천초), 중고등부 1위는 미녀마라탕 팀이 차지했다.

완도군 청소년들은 SW 코딩 드론에서 3위(위건, 완도초 6), 배틀 드론 단체전 초등부 4위(명중하리, 완도초·완도중앙초), 배틀 드론 단체전 4위(비상하리, 완도여중·완도중·완도고)에 이름을 올렸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드론이 4차 산업을 선도하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이 드론 기술을 배워 미래 드론 산업을 이끌어가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완도=정태영 기자